

送舊迎新

- 玄潭 李準雄 (공학박사) -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였던 지난해에는 남북 화해협력 을 다짐하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 상 수상등 우리나라에서는 메가톤급 뉴스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였으나 반면 여야간의 정치불화, 의약분업 갈등,중 소 벤처업계의 금융비리 및 현대(대우)그룹의 경제위기와 노사갈등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과 실의로 차 있었 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가정경제는 IMF 때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하며 또한 신사년 새해 벽두부터 영수회담 의 결결과 의원3명의 당적이탈로 국내 정치는 더욱 대립상 태에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금년에도 경 제위기가 다시 닥치지는 않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또 1995년 지자체선거와 1996년 15대총선을 앞두고 간 첩을 잡는데 써야 할 안기부예산 1천1백여억원을 당시 신 한국당 여당후보 선거자금으로 전용하였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는 아연실색하여 말문이 막힐 지경이며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검찰의 영이 제대로 먹혀 들지않고 검찰소환에 불응한다는 정치인들의 치외법권적인 행동은 정치인들만 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물론 검찰에서도 정치인 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있겠지만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은 검찰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적인 행동 을 하여야 할 YS가 상기 안기부 예산 전용에 관하여 소환 조사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DJ가 하는 짓은 웃기는 짓"이 라던가 "DJ의 최후 발악적행위"라는 등의 저질스런 발언 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되는 것을 보고있는 국민들은 과연 이런사람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었는가? 의심이 가 는 것은 나혼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그간 YS의 상스 럽지 못한, 패걸이들만이 할 수 있는, 저질발언들을 수없이 보아오긴하였으나 이제 제발 그만 뒷전에서 가만히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한편, 지난 경진년에는 남북한사이에 제1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장관(적십자,경제협력)회담이 이루어져 한반도

해빙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 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제2차 정상회담 개최 및 9월경에는 경의선 철도가 1년만에 준공되어 남북한, 러시아, 중국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시대가 도래하게되어 장 차 한일간의 해저터널까지 연결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 게될 것이다.

또 평생 민주주의를 위한 인권투쟁과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벨평화상 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은 개인의 큰영예이자 우리나라에 서도 노벨수상자를 배출하였다는 국민의 자긍심과 나라의 축복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남북한 통일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은 신사년 뱀의 해로 뱀은 끈질긴 생명력과 다산 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듯이 우리들의 삶은 지금 곧 인상될 의료보험료, 수도료, 버스료 등 각종 공공요금, 구조조정으 로 많은 기업체로부터 퇴출당한 실업자 및 정치 불안정 등 으로 어둡고 우울하겠지만 그냥주저앉을 수는 없고 뱀처럼 끈질기게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뛰어넘어 이를 극복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위정자들은 정쟁에만 휩싸이지말고 국민 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여주기 바란다. 특히면 국민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챙기는 위정자들은 신사년 새해에는 정말로 국민의 민 복이 되길 바란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국민 70%이상 이 경제난국의 책임은 정치권과 경제관료들 때문 이라 하니 위정자들은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경진년에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본 학회는 한단계 도 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큰 발전이 있었으나, 경제가 어렵 다고 하는 신사년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 는 바이다.